

아이센스, 2020년 잠정 실적 발표, 매출액 2,037억 원 역대 최고치 달성

- ▶ 2020.4Q 매출액 558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 기록
- ▶ 2021년 가이드نس 매출액 2,250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 목표 "

[2021-02-04] 아이센스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액 2,000억 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099190, 각자 대표 차근식, 남학현)가 2020년 잠정 실적과 2021년 가이드نس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37억 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3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58억 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5억 원, 71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2월 매출 일부가 해상 선적 지연에 따른 공급물량의 차질로 인해 1월 초로 이월되면서 당초 매출 계획보다 다소 줄었고, 영업이익은 재고자산의 평가대상 확대와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여 전년비 감소했다. 지난해 아이센스의 자회사인 미국 혈액응고 진단업체 코애규센스의 매출액이 연간 45%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됐다.

아이센스는 관계회사인 프리시전바이오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하여 상장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아이센스는 전망 공시를 통해 2021년 매출액 2,250억, 영업이익 270억 원의 실적을 전망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10% 증가한 수치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보류됐던 임상시험들이 올해는 속도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속혈당측정기의 유럽 및 뉴질랜드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의 경우, 지난해 30~40%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을 만큼 시장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회사는 많은 투자를 통해 22년 이후부터 연속혈당측정기 투자에 대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신시장 개척에 차질이 있었던 중국시장 확대와 미국 월마트의 혈당 제품 보급에 힘써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 문의

아이센스 양진경 과장 (Tel: 02-910-0612)

IR큐더스 신지수 책임 (Tel: 02-6011-2000*137)



<2020년 잠정 실적>

(단위 : 억원, %)

<2021년 가이던스>

(단위 : 억원, %)

구분(연결기준)	2020년(잠정)	2019년	YoY	구분(연결기준)	2021년(예상)	YoY
매출액	2,037	1,898	7%	매출액	2,250	10%
영업이익	303	302	0%	영업이익	270	-11%
당기순이익	272	233	17%	당기순이익	215	-21%

▶ 자료 문의

아이센스 양진경 과장 (Tel: 02-910-0612)

IR큐더스 신지수 책임 (Tel: 02-6011-2000*137)